논어 6편 옹야 7장 · 원문·풀이

# 季氏使閔子騫爲費宰。閔子騫曰：「善爲我辭焉。如有復我者，則吾必在汶上矣。」

독음 · 계씨사민자건위비재 민자건왈 선위아사언 여유부아자 즉오필재문상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민자건은 계씨의 관리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, 다시 부르면 나라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季 끝 계 계 / 氏 성 씨 씨 / 使 하여금 사 사 / 閔 위문할 민 민

子 아들 자 / 騫 말 배 앓을 건 건 / 爲 할 위 / 費 쓸 비 비

宰 주관할 재 재 / 曰 가로 왈 / 善 착할 선 선 / 我 자기 아 아

辭 말 사 사 / 焉 어찌 언 언 / 如 같을 여 여 / 有 있을 유

復 돌아올 복 복 / 者 놈 자 / 則 곧 즉 / 吾 자기 오 오

必 반드시 필 필 / 在 있을 재 재 / 汶 내 이름 문 문 / 上 윗 상

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